

# 濠州 熱帶 旅行記

- 濠州 獸醫師會 (Queensland州) 年例總會 參席記 -

姜 文 日\*

## ○ 出發前

濠州가 大陸이란 사실은 지도를 통해 韓國과 의 크기를 눈짐작으로 견주어도 금방 알 수 있었으나, 실제 그 實感은 없던 터였다.

한낮에 김포를 떠난 싱가포르항공기는 機內 여 승무원을 통해 生面不知의 한 韓國人의 姓을 내내 기억하면서 台灣을 거쳐 星港에 도착하니 밤이었다. 곧 갈아 탄 濠州항공기가 濠州內 중간寄着地인 Darwin에 다달은 것은 이른 새벽이었다. 이곳에서 비행기는 모든 에어컨을 끈채 문을 열고 비행기에 대한 검역을 받았다. 현지 기온이 30℃라는 機長의 착륙전 음성이 새벽의 熱帶風 속에 전달되고 있었다. 눈부신 肩章을 단 반바지 차림의 檢疫官들이 機內 뒷견부터 양손에 하나씩 치켜들은 噴霧소독통을 사람이 건 물건이건 간에 아랑곳없이 진하게 분사시키면서 지나갔다. 외로운 大陸 濠州가 하늘로부터 받은 天然的 隔離장소라는 잊음을 살려 外來性 疾病의 流入을 막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렇듯 외국을 거쳐 濠州에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는 물론 선박까지 반드시 검역하게 된다고 한다. 機內 청소와 소독후 운행중 제공되었던 機內食의 殘飯도 옮겨지고 있었는데 이것 역시 특별히 포장운송되어 소각처리 된다고 한다. 검역을 마친 비행기가 다시 이륙하여 몹시 氣流가 불안정한 항로를 따라 최종 목적지인 Tow-

\*家畜衛生研究所

nsville국제공항에 안착하니 아침햇살이 뜨거웠다. 이렇게 濠州生活은 시작되었고 수개월이 지났다.

南半球의 겨울, 그것도 熱帶圈에 속해 있는 8月の Townsville은 韓國의 가을과 여름을 하루 한날에 밤낮으로 번갈아가면서 선사하고 있다. 비록 人口는 12만명 남짓밖에 안되지만 濠州北部內 가장 큰 도시로서 3개의 도축장-그중 하나는 1일 소5백두 처리규모의 수출전용 도축장-과 濠州내 스무개도 안되는 대학교 중 하나인 James Cook대학교가 있는 태평양 연안의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筆者는 이 James Cook대학교내 學部과정이 없는 熱帶獸醫科大學院에서 見聞을 쌓던 중 "Escott총회"라 불리워졌던 1987년도 濠州 獸醫師 Queensland州 年例總會에 참가할 기회를 갖게 되어 그 旅程을 소개하고자 한다.

금년 총회는 개최장소로서 전통적으로 선호되어오던 큰 도시중심의 선택을 벗어나 광활한 야와 소사육시험장으로 택했다는데 한 특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Escott는 Townsville로부터 北西쪽으로 약1,300km 떨어져 있어서 대학원에서는 출발 한달전 참석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교통편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본 여행단의 구성은 世界保健機構의 onchocerciasis에 대한 협력센터를 주관하고 있고 대학원의 기생충학 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D. B.

Copeman교수가 단장을 맡았고, 단원은 대학원 장 겸 부속시험목장장이며 금번 총회 초청연자 중 한사람이기도 한 수의사 출신의 가축번식학 전공의 K. W. Entwistle교수를 비롯 筆者를 포함한 9명의 대학원생, 濠州人 1명, 英國人 1명, 인도네시아인 6명으로 짜여져 있었다.

#### ○첫날(8월 10일, 월요일)

늦어도 아침 7시에 학교를 출발해야 한다고 예비모임에서 단장이 강조한 탓인 지 정각 10분전에는 여행에 필요한 점검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우리가 이용할 21인승 닛산 디젤버스가 도착했고, Entwistle교수가 모든 단원의 짐을 차 뒷쪽에 정리를 마치자마자 차는 출발했다. 이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차량은 공격운행시 사용 후 주행한 km당 1센트씩 사용자연구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여행의 경우 대학원 실습과정으로 간주되어 그 모든 경비는 대학원 유지비에서 지급된다고 하였다. 단 차량 사용시는 반드시 자가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다.

Townsville기점 484km 떨어진 Hughenden에서 아직도 밭에 익숙지 않은 샌드위치와 體細胞數 5만이하의 자체규정아래 생산된 우유로 점심을 먹은 후 지평선만 멀리 보이는 2차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내륙쪽으로 갈수록 降水量이 적다고 하며, 누렇게 누워있는 초지로만 된 방목지는 주로 소목장이고, 그 초지위에 등성등성 속성 혹은 가시나무라 불리는 나무가 서있는 방목지는 양목장이라고 차내방송을 통해 Entwistle교수가 설명하였다.

오늘 일정의 주요방문지인 John & Stuart More목장은 다른 목장과 다름없이 도로변에서 거의 10km이상 떨어진 곳에 사택과 축사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만큼 한 농장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싶었다. 막상 그곳에 가니 사람이 안보였다. 여러전물을 기웃거리다 수백마리씩의 메리노종 양떼가 모여있는 한 낡은 창고를 들여다보니 십여명이 모여 있었다. 이곳이 바로 양털깎는 작업장이었다. 잔잔한 기계소리

와 함께 7명의 숙련된 자동식발기 운전사들이 분당 2마리꼴로 양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장의 양털로 깎아내고 있었다. 털을 깎인 양들은 시원하게도 보였지만 어쩔 수 없는 기계의 상처로 안스러운 출혈점을 군데군데 안고 있었다. 어느 고용자나 다름없이 일하고 있는 주인아들인 John이 자기목장을 소개하였다. 이 목장은 양이 2만여두 되고 소는 250여두 된다고 한다. 년 1회의 양털깎는 적기가 지금 겨울이며, 양털은 두당 3~3.5kg 정도가 생산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요즘음 계속 올라 좋은 사업이라고 하였다. 질병은 거의 문제가 안되고 있다면서 보툴리즘과 雨期후 폐렴에 의한 자양폐사가 좀 있을 뿐이란단다.

얼마 후 우람한 체격의 주인이 왔고, 소들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소 야외축사로 자리를 옮겼다. 소는 혈통있는 슛송아지를 사와 방목시킨 후 성우로서 다시파는 중빈우 생산 전문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마침 이날 오전 년중 몇 번 있는 소경매가 자기목장에서 있었다면서 그때 계약된 20마리의 중빈우들을 보여주었다. 그는 각 소들에 대한 출생일부터 일일증체량 등 각종 컴퓨터 집계성적을 직접 설명해 주기도 했는데 그중 몇마리는 1일 증체량이 1kg이상 되는 것도 있어 모두들 놀라와했다. 다음날 각 계약자에게 운송된다는 그 소중에 두마리는 생식기 이상이 있다는 원장의 지적에 John은 즉각 계약자에게 알려 보내지 않겠다는 진솔한 면을 보였다. 날이 저무는 가운데 John과 인사를 나누고 첫 숙박지인 Richmond로 향했다. 단 두개의 식당 밖에 없는 이 시골의 유일한 모텔에 짐을 풀었다.

#### ○둘째날(8월 11일, 화요일)

역시 새벽에 나선 길이지만 바쁘기만 하였다. 오전에 George Duncan목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도로를 중심으로 진드기 감염지역과 비감염지역이 구분된다는 희한한 지리적조건을 생각하는 중 차는 어느덧 본 도로에서 벗어나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아침 차를

마실무렵인 10시가 좀 넘어 George 사택에 도착했다. 長身의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주인이 호감어린 얼굴로 낯선 多國籍 방문단을 일일이 악수로 맞이했다. 그는 온실처럼 꾸민 사택 테라스에 손수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샌드위치와 차를 권하면서 얘기를 시작했다. 처음 그가 이곳에 정착한게 25년전이었다. 그때 찍었던 농장사진과 항공사진을 근처에 찍은 항공사진과 견주어 보여주며 오늘날의 변화를 설명했다. 가축사육의 기본인 초지개간을 계속하여온 결과 지금은 만 2천 에이커의 방목지를 확보하고 있고, 가축은 양 4천마리와 비육우 4백두를 가지고 있단다. 이 방대한 땅의 농장관리는 부인과 함께 전부 기계로 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 濠州航空社와 같은 이름의 Qantas 輕飛行機를 구입해서 농장 일중 가장 힘든 초지과종과 가축모으는 작업을 해결했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그후 농장 몇 곳을 둘러보았는데 흥미로운 점은 농장 세곳에 약 110m 깊이까지 파이프를 박아 그 수압에 의해 저질로 약 60℃ 가까운 물을 얻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이물로 농장내 만든 수십km의 고랑을 채워 초지에 물을 공급한다면서 가끔 사택의 목욕물로도 사용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 차창 밖으로만 보았던 속성나무를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온 줄기 사이마다 날카로운 가시가 길다랗게 박혀 있었다. 염려스러워 George에게 이 나무가 양들에게 어떤 해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되려 이 나무는 양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주어 번식율과 이유율을 높여주는가 하면 乾期때 초지상태가 매우 나빠지는데 그때 高質의 蛋白質이 포함된 이 나무들의 잎을 양들이 먹을 수 있어 생산성을 제고해준다고 하였다. George의 카메라로 우리를 담고 방명록에 모두의 이름을 적은 다음 오늘의 숙박지이자 다음 방문지인 Toorak 시험장을 향해 떠났다. 短長의 Yony Budds 부장장이 우리를 영접해 주었다. 도착 즉시 시험장내 외빈숙소에 방을 정하고 점심을 마치고 노곤하기 그지 없었

다. 그러나 시험장의 준비는 기대이상이어서 오히려 프로그램을 뻑뻑히 계획하고 있었다. 시험장 간부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슬라이드 등 여러 보조자료를 통해 매우 인상깊은 설명을 하고 많은 질의에는 성의껏 답하곤 했다. 이 시험장의 규모는 2천ha인데 비해 보육축은 양이 2만여두, 소는 8백여두가량 된다고 하였다. 이 지역내 연평균 降水量은 220~550mm이고 여름에는 38~40℃의 기온을 보이고, 겨울에는 7~25℃를 유지한다고 한다. 이 시험장은 주로 양에 대한 시험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얻어진 개략적인 연구결과는 양 매매시장의 소규모, 이유자양의 높은 폐사율, 낮은 털생산량 및 기생충감염 등이 사육상문제로 지적되었다고 한다. 끝이어서 야외 축사에서 미량물질 자동 첨가기의 운영법, 胃液검사, 양털검사 및 기생충 糞便검사 등에 대한 시범이 있었다. 이후 조맹시설이 훌륭한 테니스장에서 양 바베큐가 준비되는 동안 방문객들이 시합을 하도록까지 배려되어 있었다. 석양노을이 반듯한 지평선위에 유독 오래 걸려있는 날이었다.

#### ○세째날(8월 12일, 수요일)

외길 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서쪽인 내륙으로만 달려왔던 여정을 바꿔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주행하고 있는 차가 드문 이른 아침 도로상에는 아름답지 못한 광경이 눈에 띄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캥가루의 사체들이었다. 차선 저멀리 가끔 독수리를 포함하여 새떼들이 앉아 있으면 그건 틀림없이 질주하는 차에 불행을 겪은 캥가루가 있음이 분명하였다. 이렇게 대부분 밤에 운행되는 차에 치받힌 동물 중에는 캥가루가 다수이지만 새나 소도 드물지만 볼 수 있었다.

캥가루를 국가의 상징동물로 자랑하고 그외에도 모든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자동차라는 利器의 속도를 즐기는 순간에는 그들의 안위가 문제가 안되는 듯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네 텔레비전의 약선전 만큼 많은 애완동물먹이 선전이 많은 이 나라의 양면

성을 보는 듯해 쓸쓸하였다.

그의 길주변 풍경으로는 호주의 명물중 하나로 꼽히는 것으로 타조처럼 생긴 Emu가 털이 덜자란 새끼들을 데리고 위협스럽게 길가를 산책하는가 하면, 무엇에 놀랐는지 수백마리의 양떼들이 몽게구름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기도 하였고, 알 수 없는 숫자의 소떼들이 노란 초지위에서 한가로이 일광욕을 즐기는게 자주 보였다

길 양편으로는 철조망이 도로와 함께 달리고 있었다. 차가 진행중 차바퀴소리가 요동하면 그건 “건널목” 건너는 소리였다. 이 건널목은 약 3m 남짓되는 철도레일을 7~8개 옆으로 놓은 것으로 목장간의 소들이 길을 통해 건너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가름대 역할을 한다고 한다.

약 300km쯤 달리다 4각지인 Birk & Wills 휴게소에 도착했다. 커다란 햄버거를 한입 물고는 말이 힘차게 맥주를 마시고 있는 안내판을 뒤로 한채 다시 북상하기 시작했다. 1시간 반쯤 달리니 더 이상의 포장도로는 없었고 대신 잘 정돈된 황토빛 선을 만나게 되었다. 강렬한 태양볏에 모두들 지쳤는지 말도 없었고, 그저 길 저머리에 생기는 물이 고여 있는 듯한 가시 현상만을 지켜보고 있었다. 뭉쳐있는 숲들이 다가왔다 지나가기를 몇번하여 사철 물이 흐르는 江이 있는 Gregory Downs을 차창 밖으로만 구경하고, 금번 총회 장소이자 최종 목적지인 Escott에 버스가 험뎅거리며 다달은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다.

그곳에는 江을 끼고 잘자란 나무들 사이에 약 3천평 가량의 푸른 잔디가 있었다. 그 한쪽에는 하얗고 빨간 줄무늬가 번갈아 수놓은 초대형텐트가 자리잡고 있었다 총회장소가 분명했다. 우리는 그 반대편 경고판이 설명한 악어연못가에 3개의 대소형텐트를 치고, 주최자측이 제공한 매트리스를 그 안에 들여 놓았더니 제법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筆者는 영국인 마이클과 한국제품으로 표시되어 있는 한 텐트를 차지하였다. 그 텐트는 Copeman교수의 것으로 防水와 디자인 등 매우 질이 뛰어난데 비

해 가격은 파격적(?)으로 싸서 샀다는 말을 그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뜨거운 저녁 식사 후 “맥주로 먼지를 털어내는 밤”으로 명명된 총회개막 전야제 행사가 있었다. 이채로왔던 것은 호주원주민의 춤공연이었다. 까만피부의 매우 강한 體臭를 가진 11명의 원주민 공연단은 모두 남자이었고, 2m 가 넘는 길다란 통처럼 생겨 모한 공명음을 내는 악기와 물소뿔로 보이는 두개의 낮형 악기로 장단과 박자를 맞춰주고 있었다. 공연내용은 씨뿌리는 것부터 열매를 따서 돌아가기까지의 그들 농사법을 상징하는 춤이었으나 그들의 악기와 단절음처럼 들리는 목소리외에는 인상적이지 않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 Escott는 濠州 정부가 정한 원주민 거주지역이 가깝다고 한다. 그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서구화된 濠州人들의 생활양식에 적응하지 못한채 일은 않고 알골중독자가 늘어나 이 사회의 한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 춤공연에 의해 4인조 밴드가 컨트리풍의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참석자들은 춤을 즐기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정담을 나누는 가운데 밤은 깊어갔다.

#### ○네째날(8월 13일, 목요일)

새벽의 급강하하는 기온때문에 침낭속에서 아침을 맞았다.

Escott시험장은 濠州 북동부해안의 카펜테리아만에 연립해 있었다. 1864년부터 이곳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약 610km<sup>2</sup> 지역내에 부라마만 교잡우 약 8천두가 사육되고 있다고 한다. 바다쪽으로 흐르는 江, 습지 등이 이 시험장내 약 320km 있는데, 특히 해안연립 江가는 barramundi-최근 濠州 魚類 養殖業界의 각광을 받고 있는 魚種으로 成魚는 50kg 이상 나가기도 함-의 훌륭한 낚시장소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약간 쌀쌀한 공기를 마시며 주변을 산책하다 매우 흥미있는 경고판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개는 반드시 목걸이를 착용할 것, 낚

시꾼은 낚은 barramundi를 년말 最長, 最重賞을 위해 사무실의 公認을 받을 것, 수영시 악어에 주의할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유로운 야생동물들이 가끔 거칠게 굴때도 있으니 어린이들의 주의를 요망한다는 것 등이었다.

예정대로 초청 학술강좌는 정확히 8시부터 총회장 Lindsay씨의 짙막한 인사에 이어 시작되었다. 모두 반바지와 반소매차림의 청중들과는 달리 긴바지와 긴팔옷의 열대식 정장을 한 Zammitt박사의 논제는 개번식에 관한 임상적 고찰이었다. 그는 시드니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의 병원에 국내는 물론 국외품종의 개 정액은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훌륭한 슬라이드를 통해 합리적인 숫개번식 질병의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병리학, 세포학, 방사선학, 호르몬분석 등 보조적인 검사방법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가 소개했던 정액 채취방법 중 하나는 발정기의 암캐질내에 생리적 식염수를 묻힌 소독된 면봉을 넣어 가볍게 돌린 후 빼낸 면봉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 면봉은 플라스틱 에칠렌 포장지와 알루미늄 포일에 잘 싸서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정작 정액이 필요한 숫개가 있을 때 꺼내어 녹인 후 개의 코에 갖다대면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한편 암캐번식의 경우는 인공수정시 적기관단이 중요하다고 했고, 번식기 질환의 호르몬 치료는 정확한 생리지식하에 적용여부를 가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은 자연환경내 동물로서의 악어란 주제로 동물생태학자 Taplin박사가 상식적인 濠州人이 걱정하는 濠州해안내 악어번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며 그의 광범위한 요약의 끝을 맺었고, 뒤를 이어 Entwistle교수의 대단위 비육우목장에 관여하는 번식장애인자가 강연되었다. 이 두 연제는 얼핏보기에 본 총회에 걸맞지 않는 것 같았으나 되돌아 생각해 보니 수의사의 디딤돌이 모든 동물이고 또 그들의 번식이 수의학 번영의 일차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었다고 여겨졌다.

휴식시간에 회의장 후면에 진열된 濠州내 주요 수의관련회사 제품들을 둘러보았다. 수술도구, 장식용구, 혈청제제, 치료약제, 관계서적 등 풍부한 홍보물과 함께 自社에서 파견된 수의사들이 상품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계속된 강좌는 말 전문의 Vasey 박사가 말의 가장 문제되는 痲痛時 투약과 수술중 어느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측정요령이 구부러진 나뭇가지로 급조된 지시봉아래 설명되었고, 이어 말 피부창상에 대한 측정과 치료라는 거듭된 강좌를 통해 그의 해외경험까지 합한 해박한 기술을 펼쳐나갔다. 하여튼 이곳에 온이래 겨우 이십여두 정도의 말만을 부검하여 본 筆者로서는 그의 전문의 다운 지식에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들처럼 전문수의사시대가 와야 되고, 더불어 그 때의 도래를 앞당기고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는 강좌이었다.

사람은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대명제를 확고한 생활관처럼 갖고 있는 이들에게 이 총회 역시 오후는 참석자들의 여가를 위해 할애되어 있었다. 헬리콥터나 경비행기로 주변의 섬구경을 가거나, 낚시대를 챙겨 좋은 포인트를 찾아 헤매거나, 30℃가 넘는 한낮에 쪼깁을 하거나 등등 무엇인가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 그들 틈에 이방인도 흔들거려야만 했다.

외국인의 눈으로 본 고국소식을 잡음이 많은 라디오를 통해 들으면서 나에게, 수의사들에게,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차겨워진 허공중에 그려보면서 이른 잠을 청했다.

#### ○다섯째날 (8월 14일, 금요일)

식사비를 아끼겠다고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쟁겨온 라면으로 아침을 해결했다고 하였다. 그들의 화폐인 “루리”는 우리네 “원”보다 2배정도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濠州에서의 한 끼 식사값으로 자기나라에서라면 20명쯤이 죽히 배를 채울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의 묘한 웃음이 곁들인 자위를 격려하면서 총회장소에 들

어갔다.

오늘의 첫 연자는 열대수의과 대학원의 해양 병리생물센터를 맡고 있는 Glaze brook 박사가 열대지역내 해양양식계의 과거와 미래라는 색다른 주제를 다루었다. 濠州의 해양생물의 질병연구는 70년대초 바다거북에서 시작되어 거북이의 케양성 피부병 등 28종의 질병을 분류한 바 있고, 80년대에 들어서서 악어, barramundi, 새우양식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들 질병에 관한 연구도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악어의 경우 작년 그 가죽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힘입어 호주북부지방과 뉴기니아 인공사육농장이 늘어났고, 이에 관련하여 열대수의과 대학원의 명망있는 병리학자 P. Ladds교수팀이 악어의 주요치사성 질병들을 밝혀내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금년초 濠州정부의 지원하에 800여개소의 새로운 새우양식장이 시작되었고, 더불어 주정부는 이들을 위해 양식어종 선정, 질병조사 및 예방대책 강구 등에 약 9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해양양식의 밝은 미래를 열거한 후, 이 분야는 수의사의 역할확장이라는 의미에서도 적극적인 수의사들의 연구참여가 필요함을 누누히 역설하였다.

다음 강좌는 전날에 이어 다시 Zammitt박사가 비유억제 호르몬제제의 하나인 bromocriptine에 대한 개 임상의 발정주기 단축과 불임 증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제제는 개에게 투여할 시 구토증상을 보여서 임상가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나 그의 임상경험으로 보아 개 체중 kg당 0.04~0.08mg의 사용은 구토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며, 발정주기의 단축효과를 탁월했다고 하였다.

역시 전날과 관련하여 Entwistle교수가 肥育牛群 구성에 관련된 불임증이란 논제를 통해 90% 이상의 임신율과 80~85% 이상의 송아지 이유성적을 올리지 못하면 불임증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하나, 호주북방의 환경의 악조건을 고려할 때 번식율이 70~75% 정도면 확실히 경제적이지 않다면서 도태우 연령을 줄이거나

송아지의 폐사율 감소를 위한 관리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점심은 Websters社의 후원으로 제공되었고, 오후에 소모으는 작업의 현장실습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참가하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약 30명의 남녀 회원들이 7대의 차에 분승하여 Escott시험장의 야외축사를 향해 달렸다. 총회장소에서 동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있다는 그 축사를 찾아가는데는 40분이상 걸렸다. 한때의 말들이 차와 함께 경주하듯 달리는 외에 거의 소들을 볼 수 없었다. 이 광활한 시험장에 퍼져 있는 소들은 호주 인구밀도 마냥 낮은 분포로 살고 있음이 분명했다. 야외 축사는 간단한 구조로 넓은 평야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이미 거기에는 덮개 없는 목부전용 썰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시범은 헬리콥터가 와야 시작된다고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헬리콥터 2대가 도착했고 조종사 옆좌석에 각 1사람씩의 참가자들 좌석이 마련되었다. 말로만 듣던 소물기 작업이 시작되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자 헬리콥터 소음이 들려왔다. 먼 시야에 십여마리의 소들이 축사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헬리콥터는 매우 낮은 비행으로 소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육상에 대기중이던 썰차들이 곧 마중나갔고 그야 말로 하늘과 땅에서의 협공물이에 소들을 어쩔 수 없이 외길 축사로 들어가야 했다. 순서에 따라 筆者도 한 헬리콥터에 탈 수 있었다. 고공에서 소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참만에야 찾을 수 있었고, 상하좌우로 시시각각 움직이는 헬리콥터의 도전에 소들은 달리기 시작하는데 방향이 다르면 어느새 그들의 괴물은 그들 앞에서 길을 가로막기도 하였다. 모든 참가회원이 이 인상적인 작업에 직접 하늘에서 경험한 후 돌아올 때쯤은 해가 누엣누엣 넘어가고 있었다. 오는 길에 해일이나 우리네 태풍과 같은 싸이클론이 밀어 닥치기도 하는 수 km되는 침수지대를 들렀는데 그곳에는 짠 물기를 머금은 포복성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이 식물들이 乾期 때 소들에게 중요한 물

공급원이 된다고 한다.

먼지로 덮힌 몸을 씻자마자 금년도 총회만찬에 참석하였다. 오색등이 반짝이는 가운데 언제 준비했는지 선남선녀들이 완전한 정장을 갖추고 모여 들었다. 금년의 수의사로 지명된 O'berry씨에게 은메달과 함께 2ℓ 가 죽히 될 큰 포도주병이 부상으로 수여되었다. 그는 60년대의 수의사회 총회부터 최근까지의 총회 개최 당시 적어두었던 이모저모를 슬라이드로 재미있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는 전형적인 개업 수의사로 평생을 보냈고 작년에 병원을 팔고 은퇴하였다. 축하의 말을 전하는 筆者에게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기념사진을 흔쾌히 같이 찍어주었다. 예전과 달리 밴드음악도 이날은 최근 록앤롤을 연주하는 등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나가고 있었다.

#### ○여섯째날(8월 15일, 토요일)

모두들 늦은 잠을 잤건만 첫 강좌부터 빈자리가 거의 없었다.

호주북부 목장의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진드기에 대한 백신개발 현황이 Willadsen박사의 의해 자세히 거론되었다. 호주 진드기는 부필러스 마이크로 플러스로서 한국의 주요 감염진드기인 헤마피살리스 론지코니스와는 다르지만 이 진드기가 한국내에서도 서식되고 있어서 관심있게 경청하였다. 호주는 13년전부터 진드기 방제계획이 실시되어 왔으나 현재에도 연간 900억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다. 그래서 그는 지난 5년간 이 진드기백신 개발을 위해 주력해온 결과 효능이 있는 진드기 항원을 찾았고, 그 실험백신 접종을 하여 양호한 성적을 얻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있어서 내성을 유발시키지 않는 순수한 진드기 정제항원을 최소한 두개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피력하였다.

다음 연제는 Vasey박사의 다른 제목인 말 호흡기질병의 진단요령이 화면재생 녹화기까지 이용하여 상세히 다루어졌다. 각 질병의 원인

론적 발생가능성을 일일이 지적해 줌으로써 그의 知力을 한층 돋보이게 하였다.

남은 시간은 특별 임상강좌라고 해서 “60만 원 정도로 꾸민 나의 실험실”, “우리 지방내 전염성 빈혈증”, “수정부터 이유까지의 암캐관리” 등 매우 흥미로운 제목으로 직접 임상수의사들이 참여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국 각 후원사의 절박한 자사 제품소개를 끝으로 공식적인 학술강좌는 막을 내렸으나, 사교행사는 다음 날까지 계획되어 있었다.

우리는 돌아올 길이 바빠 강좌가 끝나자마자 짐을 챙겼다. 총회장 Lindsay의 마중을 받으며 그 푸른지대에서 떠나야 했다.

차 뒷바퀴를 따라 올라오는 황토길을 얼마쯤 달렸는지 모른다. 오던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한게 실수였다. 포장도로의 옆구리 쪽에서 겨우 올라와 눈에 익은 길을 달리고있었다. 매 50km 마다 설치되어 있다는 무인 송신소의 태양열 집적판이 그렇게 눈부시지 않았다. 커다란 경마장이 있는 인구 3천의 Julia Creek에 발을 붙이니 땅거미가 다가와 있었다.

#### ○일곱째날(8월 16일, 일요일)과 그후

주유소가 붙은 조그만 스넥코너에서 치즈파이로 공복을 채우고 일로 Townsville을 향해 달렸다.

지난 며칠간을 통해 느낀 바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수의사의 재교육이 어떤 형태로든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당연성의 깨우침이었다. 이곳 수의사들이 얼마만큼 책을 사보는 지 알 수 없으나, 호주수의사회 잡지가 세계의 수의학 연구자들의 가장 많이 참고로 하는 잡지 중 하나라는 여러 조사성적을 감안할 때 그들의 진지한 연구태도와 임상지식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정부는 정부대로 주기적인 외래성질병에 대한 교육을 임상수의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학교는 고유의 체계화된 지식을 틔우는 대로 재교육강좌를 개설하여 역시 관심있는 수의사들의 전문기술 연마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여러 생각이 교차되는 가운데 덩고線을 넘었다. 덩고는 개와 비슷한 동물로 신장이 150cm 정도에 황갈색 내지 적갈색피부를 지닌 야생동물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들이 보통 때는 파충류나 곤충을 먹다가도 곤궁할 때는 밤에 캥가루는 물론 양이나 송아지 등도 그들의 먹이로 한다는데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냥으로는 그들의 번식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판단, 아마 세계에서 가장 긴 수천km의 인위적인 덩고 철책선을 세워 놓고 그들의 세력확장을 막고 있

다고 하였다.

한세기 전에는 북부의 가장 번화한 중심지였다는 금광의 도시 Charters Towers의 고전적 건물들을 둘러보고 Townsville에 들어서니 이미 밤이 찾아와 있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내내 수고한 두분 교수에게 인도네시아 학생에게 배운 그들의 감사합니다라는 뜻말인 “트리마카시”를 전하면서 차에서 내리니 열대의 殘風은 여기에도 불고 있었다.

**수의사를 위한**

# 도몬·L


**바이러스성질환 치료제**

○작용기전 :

- 1) 인터페론 유도작용
- 2) 중화항체생성 촉진작용
- 3) 강한 소염작용
- 4) 면역 촉진작용

○임상적 응용 예 :

- 1) 개의 디스토펜 증후군, 파보 바이러스 감염증, 전염성기관 기관지염 (Kennel Cough),
- 2) 고양이의 전염성 비기관염 (FVR) 범백혈구 감소증, 전염성 출혈성 장염.
- 3) 소, 송아지, 돼지의 바이러스에 의한 각종 호흡기 및 소화기질환(송아지 감기, 폐렴, 하리, 자돈 하리, TGE 등)에 특효가 있음(일본 수의축산신보 게재)
- 4) 가축의 각종 바이러스성 또는 복합 감염 질병의 치료시 보조치료제로 사용



**수입·판매원 :**

**한국동물약품주식회사**

**제조원**

**Nichibio NICHIBIO LABORATORIES LTD.**

\* 기타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사 학술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